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광장	00 특선생활채조(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삼양시대 개막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첨담동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특선생활채조(재)	50 지구촌 뉴스	45 삼양시대 개막특집 K-Culture, 신한류 3.0	30 SBS 뉴스
1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투명소스 느영나영 제주편 기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재)	00 재취업 프로젝트 연기가 돌아왔다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길 고운말	50 VJ 특공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우리가족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중흥 S-클래스배 2014 교과동문졸업대회(재)
1 30 뉴스 특급	00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40 강연 100℃ 특선		20 통일전망대	30 예니애국
2 40 직언직설	05 러브 인 아시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0 TV속의 TV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연결 고향이 보인다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소중한 나눔의 이야기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유후와 친구들? 2 55 TV 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뉴스 10 아롱다롱 동화나라 40 아해 동물탐험대(2)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55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특선 생활채조	25 애니월드 55 가족의 품격 풍다공(재)	30 푹? 푹! 키즈쿨	00 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남매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덕더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부부극장 공작지(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빠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인터뷰 따따따 20 일일 드라마 (사랑만화)
8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집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세계 공영방송은 어디로 가는가 50 스포츠	00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	00 월화특집기획 (아영코 일지)	00 월화드라마 (유혹)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0 나의 결혼 원정기		15 매직아이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광화문 콘서트(재)	50 국악 한마당 ①:40 KBS네트워크 사람세상	30 나는 국가대표다 45 세상의 모든 다큐 (노르망디의 영웅) ①:35 영상앨범 산재	20 MBC 뉴스24시 3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①:05 현대인의 몸에 대한 보고서 <어린이 건강>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4:45 코고공2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 19:00 지파티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00 신나는 오정 학교	19:30 EBS 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극한직업
07:00 코코몽(재)	10: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올리비아	20:40 다큐 오늘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알래스카>(재)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서호주>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여수반도>
07:45 꼬다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라임 <맛안란 무엇인가>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응서
08:20 두다다콩(재)	13:10 생활백과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8:35 방귀대장 뽀잉이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7:00 방귀대장 뽀잉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사이틴(Sci-teen)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원더볼츠(재)	14:00 두기탐험대	17:30 꼬다버스 타요(재)	01:00 세계명작극장 <더 피시픽 3부>
09:20 출동! 슈퍼맨즈(재)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45 두다다콩	
09:35 뽀잉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1:40 최태성의 <수학 I>(재)
00:50 "	12:15 수능완성 <수학 I A형>
01:40 수능특강 light	13:05 "
02:30 "	14:00 "
03:20 뉴 탐스런	14:50 "
04:10 "	15:40 "
05:00 "	16:30 "
05:50 2013 포스	17:20 "
06:40 암흑탐스런	18:10 "
07:30 2014 포스	19:00 "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09:10 "	21:00 "
10:00 뉴 탐스런	22:00 인터넷 수능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이 5-1	16:50 "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7:20 만명왕 평가문제집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대비강좌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영어 3-2>
09:50 "	18:40 "
10:30 "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1:10 "	20:00 EBS 기획특강
11:50 "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등업신공 <수학 I(하)>	21:40 EBS UCC 공모 나파디
13:10 "	22:00 등업신공 <사회3-2>
13:50 "	22:40 등업신공 <수학 I(하)>
14:30 "	23:2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15:20 만명왕 <수학3-2>	23:50 중학e포스 영문법 1
15:50 "	24:00 백점공략 <수학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음 8월 9일 丙子)

子	36년생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하느니라. 48년생 점잖은 개가 부 뚜막에 먼저 오르는 법이다. 60년생 기세를 힘내야겠다. 72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든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84년생 치밀하 게 관리하자. 행운의 숫자 : 43, 51
丑	37년생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49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잘 살핀 다면 이루어지겠다. 61년생 걸음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 이 크다. 73년생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2, 73
寅	38년생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50년 생 여러 차례 손질을 해야 사상이 가능하겠다. 62년생 주변의 환 경 조성에 세밀하게 조처해야 한다. 74년생 어떤 태도를 취하 는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4, 87
卯	39년생 구조적인 모순에서 벗어나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니라. 51년생 검증되지 않았다면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 이다. 63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75년생 튼튼해야한다. 행운의 숫자 : 08, 04
辰	40년생 조짐을 무시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자. 52년생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64년생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 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하느니라. 76년생 어려운 지경에 하늘의 보살핌이 있었다. 행운의 숫자 : 17, 62
巳	41년생 연거푸 생기는 길경으로 매우 행복해지는 양태이다. 53 년생 유연한 사고방식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65년생 소모 적이거나 무가치하다면 멀리하라. 77년생 없으면 대응해도 아무 렇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86, 18

午	42년생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기쁨이 클 것이니라. 54년생 성부 가 격려에 달려 있으니 집중해야 할 때이다. 66년생 다양한 형태 로써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78년생 비슷한 성향이나 종전의 예에 따라서. 행운의 숫자 : 82, 91
未	43년생 몸을 일으켜 기를 펼 수 있는 형국이 되어 가고 있느니라. 55년생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인다. 67년생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지럽겠다. 79년생 흥성의 기운이 아직 다 가지지 않은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80, 95
申	44년생 지나치면 쉽게 꺾일 수도 있느니라. 56년생 판세에 따라 서 각각 다른 의미가 있다. 68년생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복잡 해지는 국면이다. 80년생 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당황할 수다. 행운의 숫자 : 27, 96
酉	45년생 내용을 잘 알고 터득해야 할 필요가 없다. 57년생 일정한 기준과 거리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상대를 인정하 고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 81년생 확립적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행운의 숫자 : 42, 28
戌	46년생 아차하면 치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된다. 58년생 주거 니 받거나 하며 박자가 잘 맞겠다. 70년생 국강의 재능을 뒤늦게 만만 총여가 있을 수다. 82년생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5, 66
亥	47년생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위상이나. 59년생 목 적하는 바가 분명해 효과적이다. 71년생 많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될 것이니 정성을 다 하라. 83년생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철 저히 준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0, 3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

“보리 덕분에 저도 힐링 되고 있어요”

MBC ‘왔다! 장보리’ 보리 役 오연서

“너무 행복하고 활활해요. 이 기분 뭐라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못해요. 보리를 만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엄청나게 힐링이 되고 있어요.”

오연서(27)는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살짝 붉혔다. ‘장안의 화제’란 이름 따는 말일 것이다.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그렇고, 그 주인공 보리가 그렇다. 시청률이 35%(TNmS 수도권)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시청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악녀가 등장하는 ‘막장’이지만 그 악녀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선하고 건강한 보리 덕에 전반적으로 밝은 기운을 뿜어낸다. 10년의 무명생활 끝에 2012년 KBS 2TV ‘낭클레 굴러온 당신’의 ‘짜지 않는’ 방말속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오연서는 이후 ‘우리 결혼했어요’, ‘오자룡이 간다’, ‘메디컬 탐미’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하지만 방말속으로 얻은 인기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왔다! 장보리’가 내리막길을 타던 그를 다시 단숨에 간져 울려 구름 위에 사뿐히 놓았다. -드라마 인기를 실감한다.

▲얼마 전 명동에서 촬영을 했는데 겁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런 게 시청률 35%의 위업이구나 싶었다. 촬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다. 다들 다가오셔서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고 반갑게 말해주셨다. 솔직히 전작(‘메디컬 탐미’)을 할 때는 극 중 ‘숯 컷’을 하고 나오는데도 (시청률이 낮아서인지) “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딜 가든 다들 “보리보리 왔냐”라며 반가워해 주신다. -막장드라마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속상하다.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연민정의 악행 때문에 막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인데 그 역시 사람 사는 일들 중 하나 아니겠나.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다. 또 인생에는 단맛과 쓴맛이 다 있지 않나. 우리 드라마는 그 모든 게 잘 버무려진 가족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악녀 연민정에게도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얘기다.

-보리는 비현실적으로 착한 거 아닌가.
▲나도 연기하면서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싶은 대목이 많다. 보리는 천사이거나 좀 모자란 아이가 아닐까 싶다.(웃음) 실제의 나 같으면 벌써 연민정의 머리칼머리를 집었을 것이다. 하하. 하지만 보리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다. 벌써 모든 것을 까발릴 수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남들이 다 칠까 봐 주저하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지금 답답해하고 있지만 보리는 비단이가 다칠까 봐 비단이의 생모가 누구인지를 차마 못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보리를 연기하면서 나 자신도 좀 성숙해진 것 같고 힐링도 되는 느낌이다.

-조반에는 코미디가 많았지만 후반 들어서는 눈물 연기가 이어졌다.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 힘들었다. 눈물 연기를 잘 못하는데 요즘 정말 매워 온 것 같다. 웃는 신이 한 장면도 없는 회도 있었다. 대본 자체가 너무 슬퍼서 절로 감정이 잡혔다. 장흥 시절은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강행군이었지만 코믹한 부분이라 행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도 울어서 에너지가 방전되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좋은 장면도 건진 것 같아 기쁘다. 보리가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아빠(안내상)와 부둥켜 안고 우는 신이 내겐 가장 인상적이었다. 촬영할 때 칭찬을 많



이 해주셨는데 내가 봐도 울컥했다. -후반으로 가면서 지칠 법도 한데 얼굴이 점점 더 예뻐진다 는 평이 많았다.

▲극 중 보리 엄마로 나오는 황영희 선배님이 “너 요즘 눈이 진짜 맑아졌다. 선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 때문 일 것이다. 보리의 선하고 건강한 기운을 받아 내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얼굴에도 드러난 것 같다. 또 살도 많이 빠졌다. 극 초반 볼륨머리 천방지축 장흥 시절 연기를 하면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살이 정말 쭉쭉 빠졌고 대사 치는 게 힘이 들어 성대 결절까지 왔다. 우리 드라마가 말로 풀어나가는 게 많아서 대사가 정말 많다. 촬영을 했는데 분량이 넘쳐서 편잡버린 부분도 많다. 살이 빠지면서 신이 살아난 면도 있다. 무엇보다 시청자의 사랑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전라도 사투리는 아키텔레션이었다.

▲힘들었다. 날마다 사투리 선생님께 배웠다. 그래도 턱도 없어서 죄송하지만 노력 중이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난 경남 장흥 출신이다. 15세까지 장흥서 지리다 상경했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긴 하지만 사투리 특유의 감성은 비슷하다. 투박하면서도 우윤이 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울로 박이가 전라도 사투리 흉내 내는 것보다는 좀 쉽게 전라도 사투리를 익힌 것 같다. 아, 대목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김승욱 작가가 습득했다. (웃음) 처음에 내가 전라도 사투리 자신 없다고 했더니 걱정 말라고, 사투리는 10회 미만으로 나올 거라고 하셨다. 서울로 올라오면 사투리를 교정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웬걸, 지금도 보리는 사투리를 쓰고 다닌다. 하하.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추억”

영화 ‘타짜:신의 손’ 함대길 役 최승현

북한군에 맞서 전선을 지키던 학도병(영화 ‘포화 속으로’)으로 시작해 사랑하는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공작원이 된 소년(영화 ‘동장생’)을 거쳐 ‘타짜’로 돌아온 남자.

오는 3일 개봉하는 영화 ‘타짜:신의 손’에서 주연을 맡은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27)은 1일 한 카페에서 만나 “이번 영화 출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우(34) 주연의 전작 ‘타짜’(2006)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운 데다 아이돌 가수 출신 연기자가 대작의 주연을 맡았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패기로 이번 영화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추억이예요.”

극중 최승현이 맡은 함대길은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가진 젊은이다. 함대길은 고향을 떠나 서울 강남 하우스에서 ‘타짜’로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우연히 고니 파트너였던 고광렬(유해진 분)을 만나고 그와 함께 악한 사채업자 장동식(곽도원), 전설의 아귀(김운석)와 승부를 벌인다. 최승현은 ‘타짜:신의 손’ 함대길 역을 제외하고는 “너무 적나라하게 쎈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참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머리가 아팠죠. 함대길이 여러 인물과 만나고 헤어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흔들리면서 제가 헛갈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그렇게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영화에 피해가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타짜:신의 손’ 연출자인 김형철 감독을 만났고 그 단단한 에너지에 출연을 결심했다는 게 최승현의 이어진 설명이다.

그는 “‘함대길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 채 그의 대리인으로서 연기하려고 했다”면서 “어떤 욕심도 없이, 부담감보다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신세경(24)과 이나리(31) 등 못 여성과 사랑을 나눈다.

“레옌물 자체가 처음”이었다는 최승현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두 여자와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세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여배우는 처음 봤다”, 이나리에 대해서는 “정말 화끈해서 친누나 같았다”고 칭찬했다.

최승현은 빅뱅으로 데뷔한 지 어느덧 8년차에 접어들었다. 가수과 배우를 오가면서 느끼는 바가 적지 않을 듯하다.

“작품 촬영이 끝나고 음악을 하려면 다시 패션을 입고 올라타기까지 한 두 달이 걸려요. 가수를 하다 연기를 하면 마치 첫 작품을 촬영하는 느낌이 들거요. 그러나 가수와 배우 모두 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무대와 연기를 오가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 점은 계속 진화하니까요.”

/연합뉴스